

사회

광주 서구 용두동 농경지 리모델링 논 진입로 급경사

농기계 접근 불가능 “농사 못 짓겠다”

농경지 비탈면 붕괴 토사 유입 피해도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광주시 서구 용두동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완공된 지 두 달이 채 안 돼 부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주변 400여 필지를 경작하고 있는 200여 농민들은 농로와 논 경계 진·출입로의 경사가 지나치게 가팔라 농기계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차례 사업을 발주한 광주 서구청, 시행사·시공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농로 진입로 경사각 완화

와 비탈면(법면) 보완공사에 모래가 쓰여 사고 위험이 있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왔다.

23일 서구청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72억원을 들여 용두동 일대 농지 100ha를 대상으로 성토를 통해 농지 높이를 1~3m 가량 높임과 동시에 콘크리트 포장 농수로,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사업 완공 후 2년 만에 다시 농사를 짓고 있는 250명의 농민들의 입에서는 한숨이 그치지 않고 있다. 400여 필지의 농기계 진·출입로의 경사각이 25도에서 최대 45도로, 사

실상 모래기와 논갈이·탈곡 등에 사용되는 이앙기, 트랙터, 콤팩트의 진·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래기에서도 일부 논에서 이앙기가 나오지 못해 트랙터 등을 동원해 끄집어내기도 했다. 크기가 작은 이앙기의 형편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농민들은 올 가을 추수기간 동안 통째로 농지 높이를 1~3m 가량 높임과 동시에 콘크리트 포장 농수로,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등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사업 완공 후 2년 만에 다시 농사를 짓고 있는 250명의 농민들의 입에서는 한숨이 그치지 않고 있다. 400여 필지의 농기계 진·출입로의 경사각이 25도에서 최대 45도로, 사

이들 정도로 높아졌으나 사업 목표 중 하나인 침수 피해 예방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진오복(81) 할아버지는 “공사기간 중에도 모래가 섞인 흙으로 법면을 쌓으면 비가 온 뒤 다 흘러내린다고 수차례 말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며 “당장 올 가을까지 비가 많이 온다는 데, 즉각적인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항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관계자는 “농기계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농민들과 협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법면 등에 대해서도 올 가을 보강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용두동 농경지 리모델링 지구에 속한 400여 필지의 진·출입로 경사가 25~45도에 이르러 농기계의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왼쪽) 리모델링 공사 중 모래가 사용된 비탈면이 지난 장맛비에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가 농지로 유입됐다.



광주시 서구 용두동 농경지 리모델링 지구에 속한 400여 필지의 진·출입로 경사가 25~45도에 이르러 농기계의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른쪽) 리모델링 공사 중 모래가 사용된 비탈면이 지난 장맛비에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가 농지로 유입됐다.

“부킹녀 성폭행범 나이트 10년 출입금지”

광주지법, 징역 5년... 심야시간 외출금지도

통역 초동생 살해사건 등 성폭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법원이 30대 성폭행 상습범에게 출소 후 10년간 모텔 등 숙박시설과 나이트클럽의 출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폭행 가해자에게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원천봉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최근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나 실형을 복역한 점 등에 비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

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판결과 유사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김씨가 성폭행을 저지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제한하는 명령을 추

기했다. 김씨에게 출소 후 10년간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도록 하고, 이

간 동안 모텔 등 숙박시설과 나이트클럽도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도록 강제했다.

이들 어길 경우 김씨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미 지난 2001년 강제추행죄와 지난 2003년 강간상해죄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김씨는 지난 5월4일 새벽 3시께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25)씨와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뒤, “드라이브를 하자”며 렌터카에 태우고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파트 경비원에게 보험 강요

“가입 안하면 해고” 입주자 회장 영장

“그 사람의 협박이 못 이겨 보험을 든 사람이 하나 둘 아니에요. 안 들면 쫓길 판인데 안들수가 없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시킨다’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위협을 못 견뎌 월 90만원을 받는 아파트 청소원도, 100여만원을 받는 경비원도 보험에 들었다.

10년 넘게 아파트 입주자 ‘회장’ 자리를 독식하면서 공사계약이나 아파트와 관련해 직간접으로 고용된 이들을 상대로 보험을 강제로 가입하게 해 부당이익을 취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북부경찰은 23일 직위를 이용해 아파트 관리업체와 청소부·경비원 등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협박한 혐의(공갈 등)로 광주시 북구 두암동

Y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도운 관리소장 박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9년 4월 3일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업체에 “내가 일하는 회사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체를 바꾸겠다”고 협박하는 등 아파트 시설 관련 11개 업체를 똑같은 방법으로 협박, 19개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4130만원의 모집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파트 청소원(51)에게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겁주는 등 경비원과 설비기사 등 16명에게 17개 보험 가입을 강요, 모집수당 78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12년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전횡을 일삼아왔고 관리소장들도 간접적으로 이씨를 도왔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나원침 (8615) 김장두



서른세살에 전과 31범

출소 5개월 만에 복지공단에서 사회적응 훈련을 받던 중 차량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23일 출소자 재활치료 공단인 법무보호복지공단(광생원)에서 차량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이모(33)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새벽 2시50분께 광주시 북

구 동림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사무실에서 이곳 직원 A(32)씨의 라세티 승용차를 훔쳐 운전해 달아난 혐의다.

특수절도 등 전과 31범인 이씨는 지난 2월 출소한 뒤, 최근까지 이곳에 입소해 사회적응 훈련을 받아오던 중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말벌 쏘인 50대女 숨져

말벌에 쏘인 50대 여성이 10여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23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20분께 화순군 남면 김모(여·50)씨가 집 앞 뒷밭을 가꾸다가 말벌에 쏘인 뒤 10여분 뒤에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남편 이모(65)씨는 아내 김씨가 쓰러지자 119구급대에 신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김씨는 곧 숨졌다.

/중부취재본부 조성수기자 css@

성욕 채우려 여학생 양말 빼앗아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3일 여자 양말 뺏음을 맡아 성적욕구를 채우려고 여학생 2명의 양말을 강제로 빼앗은 이모(27)씨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울산의 모 아파트 앞에서 A양을 뒤에서 끌어안고 품짝 못하게 한 뒤 양말 한 켤레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

렀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어린 여학생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신고 있던 양말을 빼앗은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

/연합뉴스

제주 올레길 관광객 살해 용의자 범행 자백

올레길 탐방차 제주에 왔다가 살해된 강모(여·40·서울)씨 피살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제주동부경찰은 23일 A(46·서귀포시)씨를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집중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가 실종된 지난 12일 오전 올레 1코스에서 A씨를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올레길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목격자의 제보와 탐문수사, CCTV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가 강씨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기 전날인 지난 19일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린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차량의 보조석 시트에서 혈흔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는 등 A씨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였다. 이에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경찰은 그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성산을 시흥리 대나무밭 일대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숨진 강씨는 2박3일 일정으로 지난 11일 제주에 관광을 왔다가 이튿날 오전 올레 1코스에 간 뒤 연락이 끊겼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Jung Young-jin Driving School'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driving school facility and a cartoon character holding a sign that says 'POLICE'. Text includes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and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Advertisement for 'Jung Young-jin Driving School'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with a large headline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and '광주 최대의 규모' and '깨끗한 환경' and '친절한 강사진'. It lists various vehicle types like '트레일러', '대형', '1,2종 보통', and '2종 소형 (오토바이)'. Contact info: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